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심층종교와 신비주의에 관해서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심층종교와 관련해서
발달 심리학과 심층종교를 연결시키는 그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심층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표층적인 차원, 인간의 신앙생활이 기초적인 차원에서

점점 깊어지고 변화하여서 이 신앙의 여러 가지 행태뿐만
아니라 그 목적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심리학, 인간의 마음들을 다루는 학문이 이제
심리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학 중에서도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Developmental Psychology**로 인간의 마음 혹은

심리 상태가 어떤 특정한 과정들, 경로를 밟아서 점점 더
깊어지고 발달해나간다는 얘기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로이드의 심리학. 저희가 이제
리비도의 에너지에 따라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성숙해가는가라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포함해서 칼 융과 칼 융과 같은 소위 개성화라는

과정으로 인간이 자신의 무의식 혹은 집단 무의식의 내용들을
점차 인식하고 인지함으로써 더욱더 통합되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한 칼 융의 심리학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발달 심리학인데요. 그 심층종교 역시 그런

의미에서 이 발달 심리학의 통찰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이 신을 혹은 교리를

이렇게 종교 의례를 이해하는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실제로 그 종교 교리라든지 제도라든지 의례,

상징에 대한 이해가 변모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례로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게 우물 안 자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전체

세상이라고 얘기했던 개구리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우물
바깥에 나가보게 되면 우물 안의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좁고 협소했던 건가를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반추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인간의 삶은 이런

식으로 우물 바깥으로 나가는 경험들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외국 여행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서 보면 다양한 삶의 방식들,
우리 고유의 삶의 방식과 다른 것들을 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삶의 방식만을 알고 있었던 때와 다른 방식의 사고와 다른 방식의 인지 체계, 다른 방식의 세계관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결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새로운 독서 혹은 삶의 경험들이 점차 자신의

심리적 이해나 심리적 발달들을 키워나간다고 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신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종교의 근본 목적에

이르기까지 이게 당연히 심층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표층과 심층이라는

게 또 저희가 자칫 마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어제까지는 표층이었다가 오늘부터 심층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발달하는 것처럼 어제보다 더 심층이 되지만 오늘의 심층은 내일의 표층이 되어야지 사실은 인간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계속 발전적인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표층과 심층은 절대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자기 개인이 보았을 때 어제보다 더 통합되고 어제보다 더 발달된 더

유연하고 통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면 조금 더 심층으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으니 그 심층종교로 발전해가는 과정은

일종의 끝없는 과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심층종교와 신비주의를 연결시킬 때 인간 내면을

깊숙이 탐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간략하게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탐구의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특히 종교 전통,

신비주의적 종교 전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명상이라든지 혹은 요가라든지와 같은 여러 가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서

이 표면적인 자아의식이 그것들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적인 통찰들을 얻어내고 자기 속에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차원들을 발견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끝없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더 깊은 종교 생활과 더 깊은

종교 이해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거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저희가 말씀드렸드시피 소위 신비주의에서 신비적

합일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불교가 대표적인 경우겠습니까마는 불성이라고 하는 자신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본성 자체를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소위 심층의

궁극적 지향점이 도달된다. 혹은 획득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내면을 자신의 마음을 통로로 삼든 혹은 다른 방식을 매개로 삼든 간에 더 큰 차원과 결합하는 일련의 일들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종교 전통이 제가 나중에 이제

힌두교를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요가라는 종교 전통입니다.

요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저희가 미용을 위해서 자기 몸의

살과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재결합이 아니라 분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요가라고 하는 거는 YUJI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단어로 YUJI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마구를 결합하는

이 끈을 yoke, 멍에, 굴레라고 부르게 되는데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요가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였던 신과 인간이 혹은

인간과 궁극적 실재가 하나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창조되고 다양성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사는 과정에서

원래의 하나 됨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재결합하는 거를 이제 요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는 요가라는 이름으로

인간과 신이 재결합하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을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근원적 이론성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육체를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혜를 활용하는 법, 혹은 궁극적 존재인 신에 대한 사랑과 같은

감정적 헌신을 강조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재결합을 애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힌두교 전통만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샤머니즘, 무교를 다루게 될 텐데요. 그 무라고 하는 한자 글자를 보시면 하늘과 땅을 인간이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이제 잇는다고 하는데 그 옆에 이렇게 사람인변처럼 소매가 나풀거리는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무라고 하는 게 소위 동양 종교 전통에서 말하는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인간이

재결합하는 기본적인 사건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인이 소위 심층적 종교로써 자신의 내면의 탐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늘 혹은 또 신과 인간이 하나로 결합했을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통찰을 이 종교

전통, 특히 심층종교와 신비주의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나요 하면 불멸성의 획득이라고 애기를 합니다. 소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과 신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인간은 필멸의 존재고 신은 불멸의 존재라고 하면 인간이 불멸의 존재 혹은

자신의 불멸성을 혹은 자신 마음 혹은 자신 존재의 깊은 곳에 어떤 변화 흐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차원이

있다고 하는 거를 체험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체험으로 알게 된 사람들, 존재들을 소위 이제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신비가들이라고 불렀다고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니까? 영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죽고 재탄생해서 불멸성을 획득한 존재들. 그래서 인간의 영역에 있다가 신의 영역으로

올아간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두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존재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남이라고도 이제

표현되는데요. 어쨌든 작은 나, 표층적인 자아가 죽고서 소위
영생하고 불멸하는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사건들을

신비주의 혹은 신비적 합일체험을 통한 심층종교는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방식에 관한 얘기들도 그렇게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은 우리 종교 전통에도 아주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한말에 천도교와 동학이
있지 않습니까? 동학에서 이제 천도교가 발달하는데 동학의

수운 최제우가 얘기했던 사인여천 혹은 오심즉여심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님이라고

하는 신과 인간의 마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주장과 이것을
위해서 제시된 주문수행과 방식과 같은 이런 얘기들이

대표적으로 인간 존재가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의 맥락 속에 제한된 정체성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혹은 근원적으로는 마치 불교가 얘기했듯이
내면에 인간적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불멸의 차원, 혹은

근원적인 실재와 동일한 차원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동학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비슷한

흐름으로는 원불교를 포함해서 여러 민족 종교들이 동일하게
그래서 이런 깨달음 혹은 이 깨침에 입각하면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존중해야 되는 그러니까 동학이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사인여천, 타인을 대하기를 하늘처럼

대하라, 하늘님처럼 대하라라는 얘기가 결국 인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근원적인 실재와 궁극적 실재와의 동일성

자체가 인간 존엄성의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비주의에 관한

이 논의들이 사실은 여러 종교 전통들의 차이라든지 다름을
간과하고 보편적인 하나 됨을 주장하는 나머지 이런

독특성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강력하게 제기가 됩니까마는 여하튼 표층적

차원의 종교 갈등이 심층적 차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하거나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는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불성이 됐든 혹은 신성이 됐든
이런 차원의 내재적인 존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심층종교와 신비주의 특히 신비주의는 대단히
오늘 우리가 종교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큰 통찰을 준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